사 설

다시 타오르는 대불청 되길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회원이 고령화되고, 감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군 제대자 포교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10월 27일 제22대 대불청 중앙회장에 단선된 정상옥 회장의 당선소감이다.

대불청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주도로 1920년 결성된 청년불교운동 단체이다. 해방 이전에는 독립운동과 민족정신 고취에도 앞장섰다. 현재는 전국 16개 지부 250여개의 불교청년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한국불교 최대의 재가 운동 단체이다. 만해스님을 비롯 김법린, 김판석, 김지견 등이 회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십수년 이래 대불청 활동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젊은 불자들의 가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의 조직도 동맥경화 현상을 보인지 오래 되었다. 누구의 책임을 논하기에 앞서 대불청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면 과제이다.

대불청 활동의 침체는 "초,중,고,대 불교학생회의 감소, 재정부족, 조계종단의 불안정" 등 때문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사회문화적 내지 종교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불청 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는가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

한국불교의 대중화, 현대화를 위해 대불청의 활성화는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연구와 조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너나없이 대불청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끌어 내는 것 역시 지도자들의 임무이다. 종단협과 조계종도 대불청이 거듭 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교정보화협' 창립에 부쳐

5일 불교정보화협의회가 창립됐다. 반가운 소식이다. 돌이켜 보면, 불교계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적지 않은 일을 해 왔다. 각 종단은 행정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했고 사찰들은 홈페이지의 운영을 통해 온라인 상의 전법과 신행 구도를 다져 왔다. 불자들 역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신행의 폭도 넓히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의 정보화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 지난 7월에 발표된 '불교정보화실태조사 보고서'가 불교계의 정보화 현실을 잘 대변해 준 바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아직 불교계 내부에 정보화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심지역과 농어촌 지역 사찰 단체의 PC 보유율과 인터넷 활용 실태에서 상당한 간격이 있음이 드러났던 것이다.

불교정보화협의회는 그만큼 할 일이 많다. 우선 불교계의 정보화 기반을 효율적으로 다지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 가동, 농어촌 지역 사찰의 PC 보유 확산 운동 등에 우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불교계 내부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범불교적인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실현 할 때 보다 유용하고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불교계 정보화 불사의 성공은 각 종단과 단체들이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 단계적인 비전을 제시하는데서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 진행 중인 각 종단의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공익사업을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다. 긴 시간의 노력 끝에 출범한 불교정보화협의회가 보다 진지하고 폭넓은 안목으로 거시적인 발전의 틀을 짜주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대중과 함께"…선학원 변혁 시도

중앙선리연구원 개원…연구지원·스님교육 강화

2004년 '선학원축제' 대사회 활동 적극 전개

선학원이 중앙선리연구원 개원 및 대중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금까지의 정체된 이미지를 벗고 새로 태어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한다. 이 같은 변화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전환이라는·점 외에 역할 확대를 통해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선학원은 변화는 크게 세 가지를 속에서 이뤄지며, 그 첫째는 교육불사다. 선학원은 10월25일 열린 전국분원회의에서 중앙선리연구원을 내년 3월 개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선학원은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연구위원 위촉 및 상임연구원 선임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중앙선리연구원은 구성원들에게 역사의식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불교 인재를 배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각종 연구활동과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선학원의 뿌리를 찾고 근현대 불교사료 발굴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불교 소장학자 지원사업도 대대적으로 펼친다. 선학원은 불교사상, 불교사, 불교예술 분야의 학자 6명에게 연간 6천여만 원을 지급, 학계의 젊은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 인재들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학원은 현재 2억원 가량의 후원금을 모금해놓은 상태다.

스님과 종무원 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선학원은 현재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으며, 종무행정, 포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실천적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중과 함께 하는 선학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확고하다. 선학원은 재단설립 70주년이 되는 2004년에 '선학원 축제'를 개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축제는 역경전시회나 큰 스님 유품전시회, 학술세미나, 문화 공연, 연인 맺기 등 불자와 일반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꾸밀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 사회활동 강화다. 선학원은 분원장 회의에서 복지활동을 위한 중앙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상당수 나옴에 따라 이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태고종진흥회' 구성

기금마련 5대사업 투자

원로회의 첫 회의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일우)가 지난 6월 발족이후 첫 회의를 열고, '(가칭)태고종진흥회'를 구성하는 등 종단발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원로회의는 10월 31일 총무원 3층 회의실에서 종단 원로스님들을 주축으로 올 연말까지 '태고종진흥회'를 구성, 종단발전 기금을 조성해 총무원이 추진하고 있는 5대 중점 목적사업에 쓰기로 했다.

5대 종단 목적사업은 △총무원사 이전(신촌 봉원사 또는 사간동 법륜사) △종단 재정 확보 △사찰등록 갱신 및 승려 분한 신고 △종단 전산화 등이다. 김철우 기자

불교기아도움기구 네팔에 학교 건립

2천여평 부지선정, 교원보수 전액 지원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 NGO들이 인도 등 해외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가 네팔에 학교를 세운다.

북한, 르완다 등을 지원해온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는 부처님 탄생지가 룸비니 동산이 있는 네팔에 학교 건립을 결정, 최근 현장 답사를 마치고 부지 선정 및 지원 액수를 공개했다. 네팔 포카라(POKHARA) 지역 2천여 평에 1층 규모 6개 교실 건립을 추진 중인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는 부지구입 비용 1만 5천 달러, 공사비용 2만 달러 등 총 예상 소요액 3만 5천 달러를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네팔 베그나스(BEGNAS) 지역에도 학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포카라 지역 학교는 9학년제로 학년 당 2개 반으로 운영한다. 교사와 교장은 현지인으로 하고 보수도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에서 전액 지원한다. 특히 학교 한쪽에는 한국인들을 위한 명상센터를 운영 불교 포교에도 힘쓸 예정이다. 공사는 내년 2~3월 경에 시작하고 책임실무자도 파견한다.

남동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도굴범들, 이제 도망갈데 없을걸

봉암종정·법철총무원장

일붕선교종, 25일 취임식

◇종정 봉암스님

◇법철 총무원장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0월 25일 종로구 신영동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세 종정 봉암 대종사 추대 및 제7대 총무원장 법철 종사 취임법요식을 봉행했다.

종정 봉암 스님은 71년 제주 관음사 주지, 87년 제주 불교신문사 회장, 99년 일붕선교종 원로회의 의장 등을 역임했다. 또 총무원장 법철 스님은 90년 총무부장, 96년 총무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철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오른쪽)이 '진각종 비하' 발언 이후 처음으로 10월 28일 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과 만났다.

조계종·진각종 '불편' 해소될듯

정대스님·효암통리원장 만나 "대화로 해결"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진각종 비하 발언과 관련, 대립됐던 양 종단 관계가 호전될 전망이다.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은 10월 28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정대 스님과 만나 위덕대 군승 파견, 정대 스님 진각종 비하 발언 등 그동안 불거져 왔던 사안에 대해 양 종단의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배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대 스님은 "진각종은 엄연한 불교종단"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말해 기존의 완강한 입장에서 물러나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효암 통리원장도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할 문제라는 점에 대해 정대스님과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만남으로 두 종단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본사사령

류재희
㊞ 대전지사장

2002년 11월 1일

자연속 수행의 요람 경주 여래선원(비구니 선원)분양 안내

경주시 충효동 선도산에 위치한 금선사는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구니스님의 수행처 여래선원을 성황리에 분양합니다.

경주시내, 동국대 종합병원, 경부고속철도 신역사가 각 5분 거리인 교통의 요지이자 편안한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하시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며, 건강을 위해 선도산 자연생수를 평생 무료제공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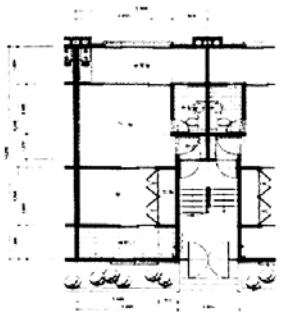
성황리 분양 중

- 총면적 : 약 17평형 ● 입주 예정일 : 2003년 10일
- 분양 입주금 : 6,000만원(아침, 점심 공양 평생 무료제공)

※ 공양제공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입주금 : 5,500만원
금선사는 이미 금선선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어 누구보다 비구니스님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54)772-7171 / 011)538-3879
경북 경주시 충효동 193-2

◁ 찾아오시는 길



여래선원 평면도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 정 합장